

명리 고전 하이라이트 강독 I

9강 신살 II

李虛中命書
子平粹言



공망

〈三命通會〉 論空亡

空對實, 亡對有言. 神白經雲: 空亡空亡幾多般, 十幹不到作空看.

洞玄經雲: 循窮而亡生. 故以甲旬盡處曰空亡, 蓋有是位而無祿, 曰空; 有支而無干, 曰亡.

如甲子的遁至酉而十幹足, 所以無戌亥, 餘五幹例見, 是為空亡.

然空而有實, 亡而有存, 所以未可便為凶論.

공(空)은 실(實)의 대척점이고, 亡은 有의 대칭이다.

〈신백경〉에 말하기를 공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천간이 이르지 못해 빈 것을 말한다.

동현경에 말하길, 둔해서 막히면 공망이 생긴다.

그러므로 갑순(甲旬)이 다하는 곳을 이르러 공망이라 한다.

대체로 자리는 있는데, 록(祿)이 없는 것을 공망이라 하니

공망을 말하여 지지는 있으나 천간이 없는 것을 공망이라 하였다.

가령 갑자순이 酉에 이르면 천간이 모두 차는데, 이로써 戌, 亥는 배당되는 곳이 없다.

나머지 다섯 旬도 이로 미루어 본다. 그러나 비었다고 해도 실체는 있는 것이다.

망해도 존재함이 있는 것이니 일률적으로 공망을 흉하다고 논해서는 안된다.

9강 신살 II

珞錄子 論 空亡雲：五陽令用一陽，五陰令用一陰。

假如甲子，丙寅，戊辰，庚午，壬申則用戌不用亥；乙丑，丁卯，己巳，辛未，癸酉則用亥不用戌。

陽分陽年，陰分陰年。又說：甲子至戊辰，以戌為空亡；己巳至癸酉，以亥為空亡，分上下五年。

中間又 分甲子至戊辰，見壬戌為重，見戊戌之類為輕；己巳至癸酉，見癸亥為重，見乙亥之類為輕。

如甲子生甲戌時，此時上正見 差輕；如己巳生癸亥時，亦時上內犯，最重。

낙죽자 논하길, 공망이라 하는 것은 五陽은 一陽을 쓰고 五陰은 一陰을 쓴다고 한다.

가령 갑자순이라면, 甲子, 병인, 무진, 경오, 임신 인즉 戌은 사용하여도 亥는 사용하지 않고,

을축, 정묘, 기사, 신미, 계유는 亥를 쓰지만 戌은 쓰지 않는다고 하니 陽은 양년을 적용하고 陰은 음년을 적용한다.

또 말하길, 甲子에서 戊辰에 이르면 戌로써 공망을 삼고, 己巳에서 癸酉에 이르러서는 亥로서 공망을 삼는다 했으니 상하 5년을

나눈다. 갑자로부터 무진에 이르는 것을 나누어 임술을 보면 무거운 것이 되고, 무술을 보는 종류는 가벼운 것이 된다고 한다.

기사에서 계유에 이르면 계해를 보는 것이 무거운 것이 되며, 을해를 보는 종류가 가벼운 것이 된다. 가령 갑자생이 갑술시라면 시

상에서 바로보는 것이라 가볍고, 가령 을생이 계해시를 만나면 역시 시상에 범하는 것이라 가장 무겁다 한다.

9강 신살 II

指迷賦 雲：祿入空亡，必分前後之辰，所以表陰陽之分，明輕重之等也。

八字金書 雲：甲寅旬，壬癸落空亡；甲辰旬，甲乙；甲申旬，丙丁；甲戌旬，庚辛。

以地支二位而論天干，或謂 十惡大敗。犯此日生者，主貧賤。

然人命見空亡而合格者多。

<지미부>에 운하되, 祿이 공망에 들어가면 필히 전후로 나누어 구별해야 한다.

이로써 음양을 나누어서 경중을 살펴야 한다.

팔자금서에 말하길, 갑인순중에는 壬癸가 공망이고, 갑진순중에는 甲乙이 공망이며,

갑신순중에는 丙丁이 공망이고, 갑술순에는 庚辛이 공망이다.

이 지지 두개로 천간을 논하는 것이니 혹 십악대패일이라 하는 것은 이날 태어난 사람이니 주로 빈천하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의 명에서 공망을 보아도 격을 갖춘 자가 많다.

9강 신살 II

凡帶此煞, 生旺則氣度寬大, 動招虛名, 長大肥滿,

多意外無心之福, 死絕則一生成敗飄泊, 但在我有氣之地, 則不能為禍.

大忌支幹與天中相合, 是謂小人得位, 則奸詐譎詭, 靡所不為.

若為我所克, 是謂天中肥殃, 反為特達之福(原注: 如戊午火人見甲子金之類).

其神性無常, 與官符並, 則佞媚多文, 與劫煞並, 則狡勇; 與亡神並, 則飄蓬; 與大耗並, 顛倒突; 與建祿並,

一生破散; 與咸池, 六害並, 多兇暴卒; 惟夾貴, 華蓋, 三奇, 學堂並者, 大聰明, 脫俗之士.

공망살이 있는데, 생왕한 즉 기운의 정도가 관대하고, 움직이되 빈 이름을 부른다.

장대하고 비만하며 뜻하지 않은 의외의 복이 들어오기도 한다.

공망이 사절이 되면 일생동안 성패가 많아서 떠돌이로 돌아다니며 다만 자신의 기가 있으면 화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공망은 간지가 합되는 것을 매우 꺼리는데, 소인이 자리를 얻음이니 간사하고 남을 기만하며 못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나댄다.

만일 내가 극하는 것이 공망이 되면 천중살이 도리어 재앙을 입으니 특별히 발달하게 된다. 가령 무오 화인이 갑자 금의 종류를 보는 것과 같다.

공망살의 신성은 항상성이 없으니 관부와 더불어 있으면 문채가 아름답고, 겁살과 더불어 있으면 용맹스럽고 사나우며, 망신과 더불어 있으면

쑥대가 회오리 바람을 만난 것 같으며, 대모 원진과 더불어 있으면 엎어져 거꾸로 돌진하며, 건록과 함께 있으면 일생동안 파산하며, 합지와 육

해살과 더불어 있으면 흉폭함이 많아 죽게 된다.

천을귀인을 공협하고 화개, 삼기, 학당 등과 같이 있으면 총명하여 세속을 벗어난 선비라 할 것이다.

9강 신살 II

又雲：天中一煞，不可全以凶言，如柱中有惡神，惡煞禍聚之地，全要空亡解之；有空亡不宜見合，合則不能空矣。

若祿馬財官福聚之氣，全怕空亡散之；有空亡卻喜見合，合則不能空矣。若無沖無合無刑，謂真空亡。

四孟太毒，只作小伎巧求人。又，甲子旬水土，甲戌旬金，甲申旬火土，甲午旬火土，甲辰旬木，甲寅旬水土，為真空亡。

又雲：響之有聲，莫非虛中也。是以大人之命，要有虛中之德。空亡自旺有用，乃大聲大應之器。

月，日，月時三位俱空亡者，不害為大貴人。若值兩位，雖有官，不大。

또 말하길 천중일살은 가히 온전하게 흉하다고만 논할 수 없다.

사주중에 악신이 있어 재앙이 모이는 곳은 공망으로 이를 해결한다(흉신은 공망되면 좋다).

이때 습을 보는 것이 적당치 않다. 합한다면 공망으로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흉신이 합되어 있으면 공망으로 해소하지 못한다)

만일 록마, 재관 등 복이 모이는 곳은 공망이 되는 것을 두려워 하는데, 공망이 되면 기운이 흩어지기 때문이다. 이때는 공망이 합이되면 좋다.

즉, 합을 하면 공망이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길신이 합되어 있으면 공망이 작용하지 못한다). 만일 충도 없고 합도 없고 형도 없으면

이를 眞공망이라 한다. 만일 진공망이 인신사해가 되면 지독한 것인데, 다만 작은 재주와 기교로 살아가는 자이다.

또 갑자순은 水土, 갑술순은 金, 갑신순은 火土, 갑오순은 火土, 갑진순에는 木, 갑인순에는 水土가 있는데 이를 진공망이라 한다. 또 말하길 울리면 소리가 있게 되는데 소리는 속이 비어야 크게 난다. 그래서 대인은 허종의 덕을 구한다. 공망이 스스로 왕하면 쓰임새가 있는데, 큰 소리를 내려면 속이 비어 있어야 한다. 월, 일, 시가 모두 공망인자는 해가 되지 않으며 대귀인이 된다. 만일 두자리가 공망이면 비록 관이 있어도 크지 않다고 한다.

9강 신살 II

又雲：凡命值空亡，時上見，多拗性，為事高而虛，更遇華蓋，決主少子。

日上見，多庶出，或妻妾間離遇偶合則多淫蕩。

古歌雲：胎裏生逢怕遇空，遇空時節自昏蒙；饒君十步有九計，不免飄飄西復東。是胎中忌見空也。

又雲：建祿臨空虛有名，平生向學老無成；若逢馬貴來相救，縱得官時又復停。是建祿忌見空也。

又雲：甲寅戊午及庚申，丑上天中最不仁；本分生來當受祿，因逢五鬼遂衰貧。

또 말하길 사주에 공망을 時上에서 보는 자는 심성이 비뚤어지고 일은 많아도 헛된 것이며, 거둬하여 시상에서 화개를 만난다면 자식이 적다. 日上에서 보면 서출이 많고, 혹 처첩간에 이별이 많고 또 배필을 만나도 음탕한 경우가 많다.

고가에 말하기, 태월에서 공망을 만난다면 사람이 혼몽하며, 아무리 좋게 보아도 십중팔구는 동서로 떠돌아 다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태에서 공망을 보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이다.

또 말하길 건록이 공망되면 유명무실하고 평생에 배우는 사람으로 늙어서 까지도 이루는 것이 없다. 만일 록마가 挾이 되면 구원함을 보지만 설사 관을 얻더라도 곧 그만두게 된다. 이것이 록이 공망됨을 특히 꺼리는 이유이다. 또 말하길 갑인, 무오, 경신이 丑(천을귀인이자 공망)상에 천중살이 되면 최고로 어질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본래 록을 받는데 五鬼를 만남으로써 쇠하고 가난해진다.

9강 신살 II

有截路空亡，正如人在途中遇水，不能前進，不可以濟，故曰截路，只以日取時見之。
如甲己日遁十二時中，申酉上見壬癸，故甲己見申酉，乙庚見午未，丙辛見辰巳，
丁壬見寅卯，戊癸見戌亥，此二時上俱遇壬癸為水故也。
此空亡非但命見不吉，凡出入，求財，交易，上官，嫁娶，百事皆忌。

절로공망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 도로 가운데서 물을 만난 것과 같아서 전진하지 못하는데
또 구제하지도 못하는 것이니 길이 끊겼다고 한다. 다만, 일로써 시를 취하여 보는 것이다.
가령 갑기일에 십이시 중에서 찾되, 신유상에서는 임계를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갑기일은 신유시상에서 임계
를 보게되고, 을경일은 오미시상에서 보게되며, 병신일은 진사시상에서 보게 되고,
무계일은 술해시상에서 보게되니 이 두 시상에서 다 임계를 만나서 水가 되는 것이다.
이 공망은 비단 명에서 보는 것이 불길할 뿐만 아니라
출입과 재물구하고 교역을 하고, 벼슬에 나아가고 시집장가 가는 등 백가지 일을 다 꺼린다.

9강 신살 II

有四大空亡, 六甲中, 甲辰, 甲戌二旬, 金木水火土全, 丙甲子,
甲午旬生人見水, 甲寅, 甲申旬獨無金, 此四旬者五行不全.

如甲子, 甲午旬獨無水, 甲寅, 甲申旬生人見金, 謂之正犯.

如當生年中不犯, 行運至水金處亦謂之犯. 若帶得, 主一生蹇滯, 不問貧賤富貴, 皆夭折.

三處重遇, 瞬息為期. 壺中子雲: 顏回夭折, 只因四大空亡. 正謂此也.

사대공망이 있는데, 육갑중에 갑진 갑술 이순에는 금목수화토가 온전하다.

그러나 갑자 갑오순에 생한 사람은 水가 공망이 된 것이고, 갑인 갑신 순에는 유독 金이 없다.

따라서 갑자 갑오 갑인 갑순 사순자는 오행이 전부 있지가 않다.

만일 갑자 갑오순 사람이 水를 보고 갑인, 갑신순 사람이 金을 볼 경우 사대공망을 범한 것이다.

가령 응당 생년중에 범하지 않더라도 행운에서 금수처에 이르면 역시 사대공망을 범한 것이라 한다.

만일 사대공망이 있으면 일생동안 일이 지체되고 부귀 빈천을 불문하고 요절한다.

삼처가 거듭 만나면 순식간에 기약을 한다고 한다.

호중자가 말하기 공자 제자 안회가 요절한 것은 다만 이 사대공망으로 인한 것이라 한다. 사대공망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9강 신살 II

洞微經 有五鬼空亡, 甲己人見巳午, 乙庚寅卯, 丙辛子醜,

丁壬戌亥, 戊癸申酉, 限至斯鄉, 主貧.

有克害空亡, 甲乙人見午, 丙丁申, 戊己巳, 庚辛寅, 壬癸酉醜, 主克害妻子.

有破祖空亡, 甲乙丙丁同上, 戊己人見戌, 庚辛子, 壬癸寅, 遇者主破祖業, 須並論之.

동미경에 운하되, 오귀공망이 있는데 갑기인이 사오를 보고, 을경인이 인묘를 보고, 병신인이 자축을 보며, 정임인이 술해를 보며, 무계인이 신유를 보는 것인데, 이 향에 이르면 주로 가난하다고 한다.

극해공망이 있는데, 갑기인이 누를 보고, 병정인이申을 보고, 무기인이 巳를 보며,

경신인이 寅을 보고, 임계인이 酉丑을 보면 주로 처를 극해한다고 한다.

파조공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갑을병정이 위에 있고 무기인이 戌을 보며, 경신인이 子를 보고,

임계인이 寅을 만나는 것인데 주로 조업을 파한다고 마땅히 논한다.

원진

〈三命通會〉 論元辰

屬毛頭星一名大耗 元辰者, 別而不合之名.

陽前陰後, 則有所屈, 屈則於事無所申;

陰前陽後, 則直而不遂, 於事暴而不治, 難與同事, 故謂之元辰.

모두성에 속하니 일명 대모(大耗)이다.

원진은 헤어져서 만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지의 충하는 자리의) 양의 앞 음의 뒤는 곧 굽히는 바가 있어,
굽힌 즉 일에 있어 떠나갈 바가 없다. 즉 곧지만 일에 이르지 못한다.

난폭할 뿐 다스리지 못하고 더불어 같이 일하기 어려우므로
고로 이름하여 원진이라 한다.

9강 신살 II

若歲運臨之，如物當風，動搖顛倒，不得寧息。不有內疾，必有外難。

雖富貴崇高，勢位炎盛，大運逢之，十年可畏。

立朝定當竄逐，居家必罹凶咎，縱有吉神扶持，不免禍福倚伏，尤忌先吉後凶，
臨旺之後，欲出未出之際，凶禍尤的。

세운에서 만나면 마치 물건이 바람을 맞아움직이고 쉬지 못하는 것과 같다.

안으로 질병이 없으면 밖으로 어려움이 있다.

비록 부귀라도 역시 두렵고 대운에서 만나면 십년이 두렵다.

벼슬자리에 있다가도 쫓겨나고 가정에서도 흉한 허물이 있다.

길신이 돌봐주더라도 기복을 면치 못한다.

더욱 좋지 못한 것은 대운에서 만나 처음에는 발복했다가 나중에 화를 당하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與官符並，多招無辜之撓；帶劫煞，則不循細行，動招危辱，
空賤無恥；婦人得之，聲雄性濁，姦淫私通奴賤，鬼魅爲憑，不遵禮法，
一生多災，雖生子，拗而不孝。

관부와 함께 하면 허물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겁살을 대동하면 움직이면 위태로움과 치욕을 부른다.
부인이 이를 얻으면 소리가 크고 성품이 탁하여 간음하고
노비와 사통하며 예법을 지키지 않고 일생에 재앙이 많다.
비록 자식을 낳아도 마음이 비뚤어져 효도를 하지 않는다.

고진 과속 및 격각살 < 三命通會 > 論孤辰寡宿及隔角殺

先賢有云：老而無夫曰寡，幼而無父曰孤，此其義也。

辰謂星辰，宿謂星宿，指其神也。人命犯此星辰，則孤寡如是。

如亥子丑逐方三位，進前一辰見寅爲孤，退後一辰見戌爲寡。

又過角爲孤，退角爲寡。乃陰陽惆悵之義。

선현의 말하기를, 늙어 지아버가 없음을 과라 하고

어린데 아버지가 없음을 고라 하니 이것이 그 뜻이다.

진은 성신(星辰)을 말하고 속은 성숙(星宿)을 일컬음이니

인명에서 이 성신을 범한 것을 고과라 한다.

곧 해자축이 세 자리로 방위를 쫓는데 앞으로 일진을 나아간 즉 인목을 보니 고가 되고,

뒤로 일진을 후퇴하면 술토가 되니 과가 되는 것이다.

곧 음양이 한탄하고 슬퍼한다는 뜻이다.

9강 신살 II

《珞錄子》云：“骨肉中道分離，孤寡猶嫌於隔角。”

王氏云：“男命生於妻絕之中而逢孤辰，
平生難於婚偶；女命生於夫絕之中而遇寡宿，屢嫁不能偕老。”
如辛丑人得庚寅，寅爲丑孤辰，丑爲寅寡宿，寅丑互爲寡宿。

〈낙록자〉에 이르기를,

“골육이 중도에 분리됨이니, 고과는 또 격각에 처함을 오히려 싫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왕씨가 말하기를,

“남명이 처가 절이 된 가운데 생하고 고진을 만나면 평생 결혼할 짝을 만나기 어렵다.

여명은 지아버가 절이 된 가운데 생하고 과숙을 만나면 비록 여러번 시집을 가더라도 능히 해로하지 못한다.

곧 신축 인이 경인을 얻은 경우이다.”

인은 축의 고진이 되고 축은 인의 과숙이 되니 인축은 서로에게 고과가 되는 경우이다.

《鬼谷遺文》云：“連屬不言孤寡，如亥得寅戌，寅得丑巳；或支干朝會包裹貴人，雖犯孤寡，不以孤寡論。”

〈귀곡유문〉에 이르기를,
“이어지고 속함이 있으면 고과로 말하지 않으니,
해수가 인술을 얻고 인목이 축과 사를 얻은 경우이다.
혹 간지가 서로 만나고 모이는데 그 속에 귀인을 포함하였다면
비록 고과를 범하였어도 고과로 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천라지망 < 三命通會 > 論天羅地網

羅網之說, 其義甚明. 然何以戌亥爲天羅, 辰巳爲地網, 蓋天傾西北, 戌亥者,

六陰之終也; 地陷東南, 辰巳者, 六陽之終也.

陰陽終極, 則暗昧不明, 如人之在羅網, 此其義也.

라망의 설은 그 뜻이 매우 명확하다.

그러면 어찌하여 술해는 천라가 되고, 진사는 지망이 되는가.

하늘은 서북으로 기울어, 술해에서 육음(六陰)의 끝이 된다.

땅은 동남으로 함몰되어 진사에서 육양(六陽)의 끝이 된다.

음양이 맨 끝이 되면, 진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그 뜻이다.

9강 신살 II

《壺中子》云：“龍蛇混雜，偏不利於辰生；豬犬侵凌，但獨嫌於亥字。”

龍爲辰，蛇爲巳；辰人得巳，巳人得辰，皆曰龍蛇混雜. 男命則不妨，惟女命破婚害子，薄命抱疾.

辰人得巳，重；巳人得辰，輕. 謂龍生蛇穴者，退；蛇生龍穴者，進.

豬爲亥，犬爲戌；戌人得亥，亥人得戌，皆曰豬犬侵凌. 女命則不妨，惟男命則滯齟齬齟，妨祖剋妻.

戌人得亥，輕；亥人得戌，重. 謂犬入豬群，則進；豬入犬群，則傷.

〈호중자〉에 이르기를, “용과 뱀이 혼잡하나 오진 진생에게만 치우쳐 불리하고 돼지와 개가 침범하여 무덤을 달리는데 다만 해수만 유독 싫어한다”고 하였다.

용은 진이고 뱀은 사이다. 진인이 사를 얻고 사인이 진을 얻음을 모두 용사혼잡이라고 이른다.

남명은 곧 방해받지 않으나 오직 여명에는 파혼과 자식을 해치고 박명하며 병을 갖게 된다. 진인이 사를 얻음은 중하고 사인이 진을 얻음은 가볍다. 말하자면 용이 사혈에 태어남은 물러난 것이요, 뱀이 용혈에 태어남은 나아간 것이다.

술인이 해를 얻고 해인이 술을 얻은 것은 저견침릉 즉 능을 침범했다 말한다.

여명인 즉 방해받지 않으나 오직 남명에는 막히고 어긋나 이를 갈게 되니 조상을 막고 처를 극한다. 술인이 해를 얻음은 가벼우나 해인이 술을 얻음은 중하다. 돼지가 개의 무리에 들어 상하는 까닭이다.

9강 신살 II

《諸書》亦云：“龍蛇混雜，常防婦女憂危；豬犬侵凌，每慮丈夫厄難。”

是男怕天羅，女怕地網。中間又分火命人有天羅，水，土命人有地網，余金木二命無之。人命帶此，多主蹇滯，更加惡煞相並，五行無氣，必主惡死。行運至此，亦如之。

〈제서〉에서 말하길, “용사혼잡은 늘 부녀에게 방해가 되니 위태롭고 근심이요, 저견침릉은 매양 장부의 액란을 우려한다”고 하였다.

이는 남명은 천라가 두렵고 여자는 지망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화명에는 천라가 있고 수토명의 사람에게는 지망이 있으나, 나머지 금목의 두 명에는 이것이 없다.

명에 이를 두르면 명주가 견체됨이 많고 또 악살을 더하여 서로 병행하고 오행이 무기하면 명주가 반드시 악사한다. 행운이 이에 이르러도 또한 이와 같다.

若天羅地網重並，爲害尤重.

《理愚歌》云：“生時地結與天盤，爭使親闈得久安.”

如甲辰命見甲戌，申戌命見甲辰，只此二辰生人，是就羅網中言之也.

만약 천라와 지망이 거듭 병렬한다면 재해 역시 거듭 중할 것이다.

〈이우가〉에 이르기를,

“생시의 지지가 천반과 더불어 묶이면 비록 쟁투하나

대궐의 쪽문에서 친하게 하니 오래 평안함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곧 갑진의 명이 갑술을 보고 갑술 명이 갑진을 본 것인데 오직 이 두가지 진에서 생한 사람에게 해당한다.

이는 나망 가운데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다.

십악대패 <三命通會> 論十惡大敗

十惡者, 譬律法中人, 犯十惡重罪, 在所不赦, 大敗者, 譬兵法中與敵交戰, 大敗無一生還, 喻極凶也.

命中犯者, 當以日上見之爲是, 其餘不論.

況犯者未必皆凶, 若內有吉神相扶, 貴氣相輔, 當爲吉論.

십악이란 율법을 지켜야할 사람이 열가지 중죄를 범하여 있으니 사면되지 않음이요,
대패란 병법 중에 적과 교전하는데 크게 패하여 한명도 생존하지 못함이니
극히 흉한 것을 비유함이다.

명중에서 이를 범했다 함은 일상에서 이를 보아 십악이 된 것이다.

그 나머지는 논하지 않는다. 다만 이를 범한 자 모두 흉하다 하지 않으니 만약 안으로
길신의 상부함이 있고 귀기가 상보함이 있으면 당연히 길하다고 논한다.

《元白經》曰：“十惡都來十個辰，逐年有煞用區分。”

如庚戌年見甲辰日，辛亥年見乙巳日，壬寅年見丙申日，癸巳年見丁亥日，
甲辰年見戊戌日，乙未年見乙丑日，甲戌年見庚辰日，乙亥年見辛巳日，
丙寅年見壬申日，丁巳年見癸亥日，蓋以年支干沖日支干，無祿爲忌，餘悉無妨。

〈원백경〉에 말하기를,

“십악이란 모두 열 개의 자리에서 오는데 년을 좇아 살이 있음을 구분하여 사용한다”고 하였다.
곧 경술년이 갑진일을 보고, 신해년이 을사일을 보고, 임인년이 병신일을 보고, 계사년이 정해일을 보고,
갑진년이 무술일을 보고, 을미년이 을축일(기축일)을 보고, 갑술년이 경진일을 보고,
을해년이 신사일을 보고, 병인년이 임신일을 보고, 정사년이 계해일을 본 것이다.
대개 년의 간지가 일의 간지를 충하여 녹이 없어지니 꺼리는 것이 되었다. 이외의 것은 무방하다.

〈三命通會〉 總論諸神煞

神煞, 古有百二十名, 其說穿鑿支離, 造化恐不如是.

除羊刃, 空亡, 劫煞, 災煞, 大煞, 元辰, 勾絞, 咸池, 破碎, 羅網, 衝擊, 天空懸針, 平頭倒戈等煞命中切要者, 已備論於前矣, 茲以諸星家考驗有理, 復備敘于左.

신살은 예로부터 120개의 명칭이 있다.

그 설은 지지가 조화를 떠남을 천착하여 두려움이 꼭 그와 같지 아니함을 말한다.

양인, 공망, 겁살, 재살, 대살, 원진, 구교, 함지, 파쇄, 나망, 충격, 천공, 현침,

평두, 도과 등의 살은 명중에서 가장 절실하고 요긴한 것이다.

이외에 여러 점성가들이 고찰하여 그 이치가 있음이 징험된 것이 많으니

다시금 보충하여 아래와 같이 서술한다.

9강 신살 II

自縊煞(자액)

水溺煞(수익)

挂劍煞(괘검)

天火煞(천화)

天屠煞(천도)

天刑煞(천형)

雷霆煞(뇌정)

吞陷煞(탄함)

官符煞(관부)

病符煞(병부)

死符煞(사부)

喪吊煞(상조)

宅墓煞(택묘)

日刑煞(일형)

流血煞(유혈)

劍鋒煞(검봉)

戟鋒煞(극봉)

浮沈煞(부침)

破煞(파)

返本煞(반본)

陰陽煞(음양)

淫欲妨害煞(음욕방해)

孤鸞寡鵲煞(고란과곡)

陰陽差錯煞(음양차착)

返吟遇梟名短壽煞(반음우효명단수)

桃花紅豔煞(도화홍염)

9강 신살 II

如人命已入貴格, 緊要處帶煞, 有福神助之, 則名爲權柄;
無福神助之, 又煞氣乘旺, 遞互往還, 或刑剋本主, 下賤惡死.

又云, 一切福神所居之位, 則欲生旺, 生旺則榮貴;

一切煞神所居之位, 則欲死絕, 死絕則善終.

명이 이미 귀격에 든 경우라면 살을 두름이 긴요한 것일 수도 있다.

복신이 이를 도우니 이름하여 권병, 즉 권세를 잡은 것이라 한다.

복신의 도움이 없고 살기는 왕성함을 타서

서로 교대로 가고 오거나 본주를 형극하면 하천하고 악사한다.

또 이르기를, 일폐의 복신은 그 자리에서 곧 생왕함으로 바라니 생왕하면 영귀해진다.

일체의 살은 있는 그 자리에서 곧 사절됨을 바라니 사절되면 종래엔 아름답고 착하게 마무리된다.

9강 신살 II

又云, 凡福神欲令得旺氣, 忌有敗之者; 凡凶神欲令得衰氣, 忌有助之者.

又云, 相沖相破, 三合六合, 命中有之, 即求五行相得何如.

或禍中生福, 福中生禍.

如死絕復生, 空亡受破, 相剋相成, 則禍中生福, 反此, 則福中生禍.

또한 무릇 복신은 사령함에 왕기를 얻기를 바라고 패함이 있음은 꺼린다.

무릇 흉신은 사령함에 쇠기를 얻기를 바라고 이를 돕는 것이 있음을 꺼린다.

또한 상충상파, 삼합육합이 명중에 있으면 오행이 서로 어떻게 얻는가를 찾아야 한다.

화 중에 복이 생기고 복 중에 화가 생긴다.

사절의 경우 다시금 공망되고 파를 받으며 상극되면 화중생복이다.

이와 반대면 복중생화인 것이다.

9강 신살 II

《命書》云：“道途賤吏，豈無驛馬攀鞍；市井博徒，亦有三奇夾貴。”

子平云：“君子格中，也犯七煞陽刃；小人命內，亦有正印官星。”

由是觀之，吉凶神煞，不可拘定；輕重較量，要在通變。

大抵凶煞所居，於神不宜帶真鬼；剋傷本身，雖見官星，尚變爲鬼，況是真鬼。

其爲災禍，明矣！

〈명서〉에 이르기를,

“길가의 천한 관리라도 어찌 역마 반안이 없을 것이며 시정잡배라도 삼기와 험귀가 있는 법이라”고 하였다. 자평이 말하기를, “군자의 격중에도 칠살 양인이 있고 소인의 명에도 또한 정인과 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길흉신살이란 딱히 정해져 있다 할 수 없다. 경중을 비교 측량하여 변통함에 요점이 있는 것이다.

대저 흉살이 극하는 곳에 천간의 신으로 진귀로 두르는 것은 마땅치 않다.

본신이 이미 극히 상했는데 오히려 관성을 보게 되면 항상 귀(鬼)로 변하는 것이다.

하물며 이를 진귀라고 하면 그 재앙과 화가 됨이란 참으로 명확한 것이다.